

IBK MAGAZINE

WIN CLASS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Vol. 18 / 2020. Summer



IBK PRIVATE BANKING QUARTERLY MAGAZINE



고립무원(孤立無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집안에만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
 많은 가게가 임시휴업을 내걸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거리는 한산하기만 하다.
 세계 경제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언택트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경제 흐름이 생겨나기도 했다.
 전례 없는 양적완화, 한국판 뉴딜 등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WORDS. 박영화

발행일

2020년 6월 5일

Publish

IBK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82

Planning & Design

경성문화사 02. 786. 2999

Print

경성문화사

<WIN CLASS>는 프리미엄
 경제·금융·문화 정보를 담은
 <IBK magazine>의 별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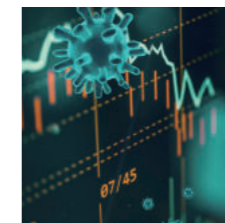
Contents

2020 — SUMMER

Vol. 18

04	SPECIAL COLUMN	한국의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
08	GLOBAL REPORT	김정은 건강이상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2	ISSUE & FOCUS	부동산 거래로 편법 증여·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16	THE INTERVIEW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로 준비한다
20	RICH KNOWHOW	부동산 취득 시 절세방법
22	TREND REPORT	언택트 시대, 주목받는 모션·음성인식 기술
26	INVESTMENT	2020년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30	CULTURE SPACE	공연과 전시, 이제 안방에서 즐긴다
34	LIKING TRAVEL	삶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요? 부탄으로 떠나는 여행
40	CONSOLATION OF BOOK	'행복'이 잡는다고 잡아 지나요 '과자가게의 왕자님'
42	IBK FUND	IBK 추천 펀드

<WIN CLASS>의 외부 필자 원고는 IBK 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실적배당형 상품이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양적완화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의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

매우 이례적인 일이 2020년 경제에 등장했다. 1948년 WHO(세계보건기구)가 설립된 이래로 팬데믹을 선언한 것은 1968년 홍콩 독감, 2009년 신종플루에 이어 코로나19가 세 번째다. 2003년 중국 사스 사태와 2015년 메르스 사태와는 수준이 다른 이례적인 일이 등장한 것이다. 5월 20일 현재까지 전 세계의 확진자가 5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코로나19가 몰고온 경제적 충격은 너무나 강력했다.

WORDS.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최악의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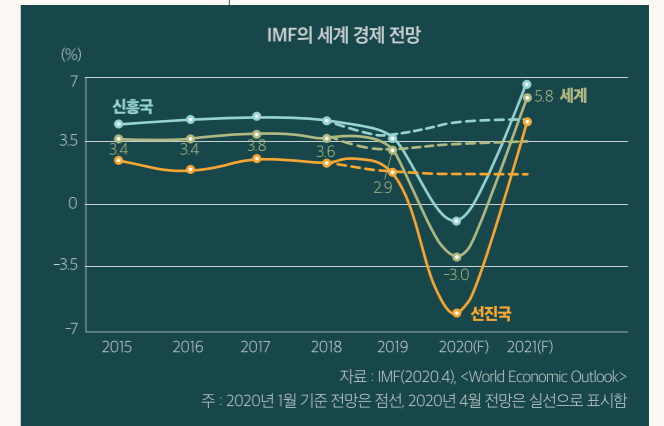
지난 4월 IMF(국제통화기금)는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세계 경제는 -3.0% 수준의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경제성장률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숫자이고, 1980년대 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0.08%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팬데믹이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약 9조 달러(원화 기준 약 1경 96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는 세계 3,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과 독일의 한 해 경제 규모를 합산한 것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단, IMF의 전망은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하반기에 사라지면서 세계 각국이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해제해 나갈 것으로 가정(Baseline Assumption)한 것이다.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2020년 하반기까지 지속되거나, 2021년에 재발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충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불안정한 경제현상

개학 연기, 재택근무, 무급휴직, 희망퇴직, 사업장 폐쇄, 사실상 실직, 개점휴업. 이루 언급할 수 없는 수많은 단어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2020년의 시대상이다.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5월 19일 기준 6만 5,000여 곳에 달한다. 휴업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바이어와의 미팅이 성사되지 않아 수출계약이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4월 실업률은 14.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자리는 2,050만 개가 사라졌다. 금융시장의 역사도 새로 써지고 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지수(Volatility Index)는 2020년 3월 16일 82.69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8년 11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0.86의 전 고점을 경신했다. 이는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82.69%의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공포감이 투자자에게 반영되어 급락하다가, 대규모 경제정책이 시행되거나 치료제 등이 개발된다는 호재가 발생하면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다. 국내의 증시의 낙폭 수준은 이루 계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3월 10일 미국 뉴욕증시는 7% 폭락하면서,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됐다. 한 주 동안 세 번의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이다. 특히, 3월 11일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은 공포의 연속이었다. 한국의 코스피는 장중 낙폭이 5%를 넘으면서 3월 12일과 13일 이틀 연속으로 사이드카(Sidecar)가 발동됐다. 2011년 10월 4일 이후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수준으로,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충격적인 숫자이다.



Circuit Breaker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1997년 이후 처음으로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발동됐다.



Side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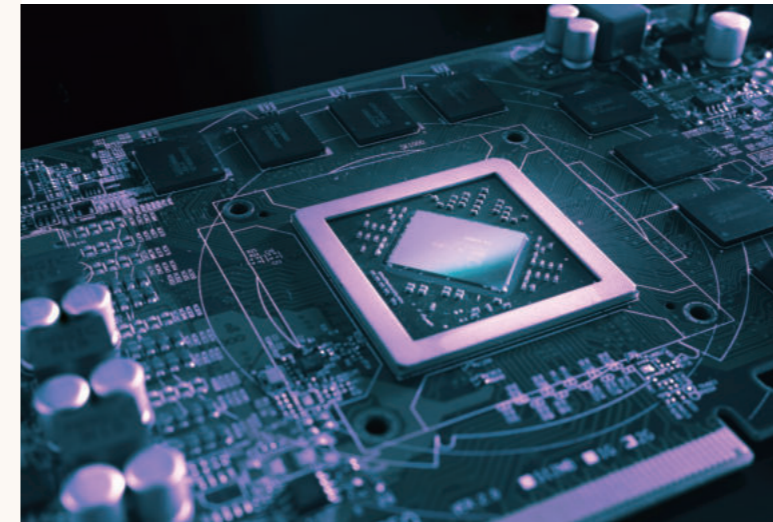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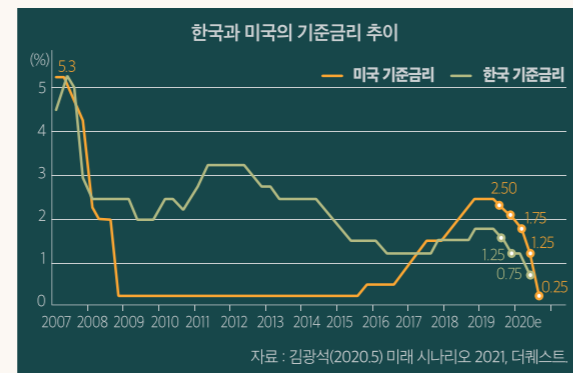
선물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의 전단계로 증권시장의 경제경보라고 할 수 있다.

8년 5개월 만에 처음이고, 이를 연속 사이드카 발동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례적 양적완화 정책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통화정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월 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0.25%p씩 금리를 조정하는 일명 '그린스핀의 베이비스텝' 원칙에서 벗어난 '빅컷(Big Cut)'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더해 3월 16일 기준금리 1.0%p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강력한 기준금리 인하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이라, Fed는 무제한 양적완화(Unlimited

Quantitative Easing)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여건에 따라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매입대상에 회사채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은 그제야 대응에 나섰다. 4월 9일 예정되어 있던 정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에 두고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 3월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0.5%p 인하했다.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더욱이 임시 통화정책회의를 열었던 일은 9.11 테러 직후 2001년 9월과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저금리 시대를 맞이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금융회사에 유동성(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도 체결되었다. 2020년 3월 19일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6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를 맞바꾼다는 뜻으로,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상호국의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본시장에 공포감이 극대화되면서 달러화 수요가 급증했고(달러화 수급 불균형), 이에 따라 환율이 요동쳤다. 이는 한국의 달러화 수급에 숨통이 트여 외환건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투기 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달러 약세를 조성해 교역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주변국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자국의 대외거래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통화정책이지만, 이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의 이례적인 일이다.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경제위기가 가시화된 만큼, 강도 높은 정책들의 종합세트를 보게 된 듯하다. 기업들은 경기부양책들을 활용하는 사업전략들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초저금리를 유지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턴(U-turn) 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산업보조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경기부양책들을 활용하는 사업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들은 다양한 산업에 걸친 직간접적 피해 수준과 시나리오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세계 스마트폰산업의 수요가 10%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 주요 구성품(디스플레이 등) 및 소프트웨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반도체산업도 기업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감소할 것이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가 두드러지게 감소할 것이지만, 온라인 이용 급증으로 데이터센터 등 서버용

수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셋째, 자동차 산업은 수요와 공급의 동시 쇼크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GVC 정상화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전장산업과 배터리 부문 등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넷째, 석유화학산업은 유가 하락에 따라 원가 절감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석탄과 메탄올을 원료로 하는 중국 업체들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 다만 충분한 수요가 동반되지 않아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재의 경우 여행과 관광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국내외 수요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화장품을 비롯한 주요 소비재를 온라인 수요로 충격을 얼마나 상쇄할 것인지가 기업전략의 관건이 될 것이다. WIN CLASS

GVC 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이라는 뜻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은 건강이상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지난 4월 21일 CNN은 미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큰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 중대한 위험(Grave Danger)에 처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있는 이후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들은 혹시나 모를 북한의 정권 교체와 급변 사태에 관한 추측성 루머를 앞다퉈 보도했고 국내에서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위시로 과장된 허위 및 가짜 뉴스들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WORDS. 최성근 머니투데이 이코노미스트

김정은 건강이상설로 요동친 세계 금융시장

비록 20여일 만에 김 위원장이 건재한 모습을 직접 보여주면서 일련의 사태가 오보에 따른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CNN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이 이렇게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았나 싶을 정도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가져온 파장은 작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안이 지속되고 있던 국내외 금융시장은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이 나오자 이전의 어떤 북한 관련 뉴스들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다. CNN 뉴스의 보도가 나온 4월 21일 오전 한국 금융시장은 코스피가 장 중 약 45포인트 하락하며 1840선까지 내려왔고, 미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도 9원 이상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러한 주식시장과 환율 움직임이 예상치 않았던 것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한때 1600포인트마저 붕괴됐던 코스피지수가 4월 17일 1914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코스피 2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원화 환율도 비슷한 시기에 1,280원까지 상승했다가 4월 17일에 1,217원까지 하락(원화 강세)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김 위원장이 위중하다는 뉴스가 전파되자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치며 코스피지수는 급락했고, 환율은 하루만에 10원 가까이 급등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충격이 워낙 컸기에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거의 무관심에 가까웠던 북한발 뉴스 하나로 이렇게 금융시장이

반응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통상 북한 관련한 뉴스들은 대부분 국내에 국한되었지만 이번에는 CNN이나 로이터 통신 등 유수한 언론사들이 나서서 뉴스를 확산하는 바람에 그 파장이 해외로까지 미쳤다. 실제로 4월 21일 오전 홍콩 항셱지수, 중국 CSI300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등 아시아 주요 증시의 주가지수도 장 중 1~2%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이후 유럽과 미국 시장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졌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 직후 불안했던 국내외 금융시장이 다시 안정세를 되찾기는 했지만, 적어도 회복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던 국내외 금융시장의 흐름에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 더욱이 국내외 언론이 잇따라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는데도 북한 측에서 그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반박 내용을 담은 보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과 불안은 지속적으로 증폭됐고, 코로나19 사태와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고조되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투자 분위기는 끄공 얼어붙다시피 했다.

북한 체제의 불안은 곧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

그렇다면 갑작스러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배경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후계 구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중하다는 루머가 떠돌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30대의 젊은 김 위원장의 자녀들이 후계자가 되기엔 너무 어려 세습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북한 최고 권력의 공백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하게 될 권력구조의 불안이 결국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 세습 체제에 내재한 불안과 권력 체계의 붕괴는 곧바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CNN이나 로이터 통신 등 유수한 언론사들이 나서서 김정은 건강이상설 뉴스를 확산하는 바람에 그 파장이 전 세계에 미쳤다.

간의 패권 경쟁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비공식적이지만 30기 내외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면서 미국과의 핵협상은 물론 핵 발사 버튼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핵무기는 여전히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과 미국에게 중대한 안보적 위협요소이기에 핵무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필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제기되자 일부 방위산업체는 급락한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수혜를 톡톡히 봤다. 코스닥 시장에서 대표적 국내 방산업체인 빅텍(23.76%), 스펀코(20.27%), 한화에어로스페이스(5.34%), LIG넥스원(2.16%), 한화시스템(1.59%) 등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세 번째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국내외 이슈가 대부분 코로나19 또는 잇따른 경제위기 그리고 21대 총선에 거의 매몰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불쑥 튀어나온 돌발성 리스크였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사일 실험과 군사훈련 등을 강행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지만

핵무기의 향방을 결정하는 권력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필연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일련의 도발은 언론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거의 무감각해진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의 헤드라인에서 터져 나온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그에 따라 부각된 한반도 리스크는 그동안 코로나19에 함몰되다시피 했던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기사나 정보를 팩트체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의 신변에 대한 정보는 북한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나 고위 핵심인사를 제외하고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인데도 몇몇 탈북자나 확인되지 않은 짜라시에 의해 제기된 뉴스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 확산된 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북한 관련 정보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더구나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2명의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위중하다며 나아가 사망설까지 강력하게 주장하자 이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 '김정은 사망'이라는 기사 제목까지 나오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북한 권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야당과 보수 언론 및 유튜브 등에서 수많은 확인되지 않는 자극적인 뉴스와 정보들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마치 당장이라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됐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이 남긴 것

불행인지 다행인지 김 위원장이 20여일 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번 사태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경제적 충격도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금융시장은 연쇄적인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가 우려될 만큼 쇠약해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단기간 금융시장에 국한됐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 첫 번째는 과거 김정일 정권 시절에도 그랬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그리고 북한 체제 불안 혹은 급변 사태와 관련한 이슈가 향후 얼마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며 그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폐쇄된 북한 사회에서 정보나 기사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데도 갑작스럽게 북한 체제나 급변 사태와 관련한 뉴스와 정보가 SNS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면서 한반도 전체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은 정말 순식간의 일이며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은 신속하고 심대하다. 그러므로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북한 관련 정보가 재차 확산될 경우 최소한 정보 출처에 대한 확인과 다양한 팩트체크 루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오보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금융시장 관계자나 투자자의 경우 짜라시나 불확실한 뉴스를 곧장 수용할 것이 아니라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교훈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이번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위기를 넘어서 경제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각 국가들이 전대미문의 대책들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데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이번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금융시장은 연쇄적인 실물경제의 위기로 전이가 우려될 만큼 쇠약해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비록 작아 보이는 북한 이슈라도 금융시장에 큰 충격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 급변 사태나 북한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날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관련 기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시나리오별 경제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세 번째는 북한 핵 협상이나 한반도 평화정착 및 남북 경험과 관련한 노력이 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당장의 이익이나 가시적 성과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은 당위적인 사안이며, 만약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깨지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 경우 이는 국내외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의 충격으로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급변 사태 발생이나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되기 전에 북미 간의 핵협상이 이뤄지고 남북관계도 조속히 개선되어 고질적인 한반도 리스크가 제기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WIN CLASS



부동산 거래로 편법 증여·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지난 4월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에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한 사람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WORDS.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는데 칼을 빼 들었다. 정확히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소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를 억누르는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불황과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드는 세수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 내내 이어질 기획조사로 준비 없이 부동산을 사고팔다가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요구된다. 어떤 거래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와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개월마다 반복되는 정부 합동조사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 32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1월 1차 부동산 조사를 통해 532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올 2월 2차 조사에선 670건을 찾았고 지난달부터 시작된 3차 조사에서 835건의 탈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3차 조사 대상과 국세청 자체 검증 대상자 중 탈세 혐의가 짙은 517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2차 조사는 서울 지역이 대상이었고, 3차 조사는 전체 투기과열지구가 대상이었다. 3차 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변칙 거래로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의심자가 2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매입

정부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탈세 의심자가 279명,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가 146명이었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 증여 등의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가 146명이었다. 다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32명) 순이었다.

이런 경우 바로 세무조사

일단 국세청은 정부 합동조사를 통해 탈세 의심 대상인 사람 중 일부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통된 특징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거나 부모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가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국세청 레이더망에 대부분 걸린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편법 또는 불법 증여로 확인돼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 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거래하는 것도 증여세 탈루 혐의로 조사대상이 된다. 반대로 시가보다 높게 거래하면 나중에 양도세를 적게 내려는 것으로 의심받는다. 또한 소득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고액 전세보증금을 물고 있어도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 자금이 대부분 증여를 통해 마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0세 이하인 연소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세무조사를 피하기 쉽지 않다. 특히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 대부분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부동산 거래의 대세가 된 법인 투자자들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 법인인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 분석

국세청은 탈세 소지가 있는 부동산 거래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조사를 진행했다. 올 2월까지 이어졌던 2차 조사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부동산 거래 유형을 소개한다.

① 타인 명의로 자녀 통장에 입금

A씨는 틈만 나면 지인과 거래처 명의로 자녀 B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수십 차례 우회입금을 통해 직업도 없는 B는 수십억 원의 현금부자가 됐다. B는 그 돈으로 여러 개의 상가 등을 취득해 건물주가 됐다.

한옥 주택 같은 다른 건물을 살 때까지 이런 마법은 통하는 듯했다. 하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부동산 취득 자금을 변칙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② ATM 통해 수십 개 계좌에 분산 예치

한이사 C씨는 연간 소득을 2억 원으로 신고했다. 그런데 20억 원대 아파트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이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매출을 봤더니 수상한 거래가 발견됐다.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이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적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C씨는 진료비로 받은 현금을 가지고 매일 은행 ATM으로 달려갔다. 가족과 친구 명의를 빌려 수십 개의 개인 계좌로 분산 예치했다. 이런 식으로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거기에 부친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증여받았다. 수억 원의 증여세와 소득세를 추징당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과태료까지 부과받았다.

③ 보유세 증가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아파트 매입

소득이 거의 없는 50대 D씨가 10억 원대 아파트를 샀다. 그 과정에서 자녀로부터 7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렸다. 차용증은 썼지만 원리금을 거의 갚지 않았다. 알고 봤더니 다주택자인 자녀가 보유세 증가를 피하기 위해 모친인 D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이었다. 바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통보됐다.

탈세 의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반대로 건설업자인 H씨는 연소자인 자녀와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신축했다. 고액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④ 법인의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

서비스업 법인을 운영하는 30대의 연간 신고 소득은 1억 원이었다. 그런데 10억 원대 아파트를 계속해 매입했다. 그 법인의 비용을 살펴보니 가공인건비가 여러 건 있었다.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였지만 불법이었다. 또 아파트 취득자금 중 상당액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었다. 법인세 및 증여세 탈루로 간주됐다.

엄하게 법인 세우면 더 위험

부동산 탈세 조사는 모두 국세청 본청의 자산과세국이 진행하고 있다. 통상 국세청의 1개국이 부동산 관련 조사를 하면 다른 국은 비슷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국세청 본청의 조사국까지 나서서 부동산 법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아파트를 보유한 1인 주주 또는 가족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하고 있다. 1인 주주 부동산 법인은 2,969개이며 가족 부동산 법인은 3,785개다. 1차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 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다른 1인 주주 및 가족 소유 부동산 법인도 탈세 혐의가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운 부동산 법인도 개인 다주택자처럼 아파트 양도 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일부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부동산

법인이 편법 증여 및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어서다.

2018년 9,978건이었던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만 7,893건으로 80%가량 증가했다. 올 들어 3월까지 개인과 법인 거래 건수도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73% 수준인 1만 3,142건에 달한다. 전체 6,754개 법인이 소유 중인 주택 수만 2만 1,462채다. 법인당 3.2채를 보유한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세워 정당하게 세금을 냈으면 문제가 없지만 세금을 탈루하거나 자금 출처를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법인이 세원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WIN CLASS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 (단위:건)		
2018년	2019년	2020년 1~3월
9,978	17,893	13,142

신규 설립 부동산 법인 수 (단위:건)		
2018년	2019년	2020년 1~3월
7,796	12,029	5,779



2018년 9,987건이었던 개인과 법인 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만 7,893건으로 80%가량 증가했다.

정철진
진 투자컨설팅 대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판 뉴딜로 준비하다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침체된 세계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대국민 담화에서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제평론가인
정철진 진 투자컨설팅 대표를 만나
국내외 경제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제시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WORDS. 박영화
PHOTOGRAPHS. 고인순

Q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세계 경제 상황은 한마디로 최악입니다. 지표로만 보면 지난 1929~1940년 미국 대공황 시절에 육박할 정도로 힘들죠. 가령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4.8%였는데, 지금 예상되는 2분기 성적표는 -30%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실업률도 1분기가 14%가 넘었는데, 4~6월 미국 2분기 실업률은 2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잘 버틴 거죠.

Q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제지표를 보이지만 아직 금융시장이나 체감경기에서 대공황 시절처럼 대폭락으로 빠지지 않은 건 '돈의 힘'입니다. 지금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 '버티기' 작업에 돌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일단 코로나19 치료제 또는 백신이 나와서 전염병 공포를 떨쳐내고, 그런 다음 내수가 살아나고, 자연스럽게 생산이 따라오고, 이어서 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경제 급락도 그렇지만 경제 회복 역시 시작은 '코로나19'라고 할 수 있겠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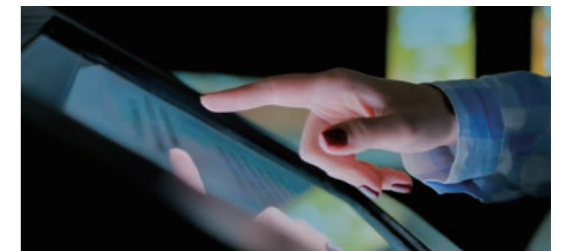
Q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우리 경제 상황은 어떻게 바뀔까요?

실물경기와 금융시장을 나눠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실물 쪽은 긍정론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V자 반등은 힘들 것으로 봅니다. 지난 5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90% 경제'라는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 코로나19가 잡혀도 사람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남아서 항상 '10%'는 남겨둔다는 내용이었어요. 100을 소비하지 않고 90만 쓰고, 고용도 90%만 하는 등 이제 90% 경제로 축소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산업구조의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말로만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속도가 붙는 건데, 이런 산업구조의 변화는 엄청난 실업을 동반합니다. 이 또한 실물경기에 타격을 줄 겁니다. 반면, 금융시장은 천문학적인 돈의 힘으로 유동성 잔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돈들이 주식시장이나 원자재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언급하셨는데, 그 시대를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온라인에서는 초연결사회, 오프라인에서는 신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만나는 세상이지만 오프라인에서는 높은 칸막이를 쳐가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인문학자들은 과거 14세기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나온 '성곽주의'를 언급하면서 더 봉쇄될 것이라고 하고, 반면에 IT 전문가들은 모든 인류와 사물이 한데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이 실생활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만들고 띄우는 자체가 3차 산업혁명이면, 이 드론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와 택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Q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인 디지털 혁명이 실생활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을 만들고 띄우는 자체가 3차 산업혁명이면, 이 드론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와 택배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죠. 전기차, 수소차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많은 장치를 붙이는 게 3차 산업혁명이면, 이 자동차가 홀로 달리고 멈추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이뤄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각종 디지털 첨단기기가 나와서 수술하는 게 3차 산업혁명이라면 원격의료가 대중화되고 나아가 인공지능(AI) 의사인 '왓슨'이 환자를 진료하는 단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Q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면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정부는 과거 미국 대공황을 극복했던 '뉴딜' 정책에 착안해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5G, AI 등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본 일자리 55만 개를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의 성격이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의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Q 한국판 뉴딜을 통해 전망해본다면 앞으로 어떤 분야를 기대하는 게 좋을까요?

정부가 제시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언택트 비즈니스)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가



정부가 제시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언택트 비즈니스)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가 큰 틀입니다.



큰 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부 사항이 추가되는데 이는 10대 중점 과제로 △데이터 전 주기 인프라 강화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 산업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기반 조성 △클라우드 및 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SOC 디지털화 등입니다.

Q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줘야 할 게 있을까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모습이 아닌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업무나 전통 산업에는 '실업'이라는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새로운 돈 벌 기회가 생기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괴로운 실직이 발생하는 역설적 모순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꼭 '조율'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구조 전환으로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번 디지털 구조 전환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아니 세계 인류에 주어진 숙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IN CLASS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있고, 유상취득의 방법으로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방법과 법원에서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의 종류와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WORDS. 이동현 대한행정사협회 세법 담당교수, 부동산 경매 컨설링



부동산 취득 시

절세방법



처음부터 세금에 대하여 인식하고 준비를 한다면 절세가 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세금을 줄이려 한다면 줄이는 비용도 많이 들고 자칫 탈세가 될 수 있다. 평소 세금에 관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단계별로 준비하여야 한다. 어떤 부동산을 얼마에 매매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제외한 실제 순이익(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세금이다.

경매를 통한 매수 시 취득세 계산

취득 당시의 가액에
세율(취득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을 적용

01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취득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경매를 통하여 취득할 때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취득할 때보다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인 30평형 아파트의 전세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6억 원에 매수할 때 중개사무소를 통한 일반 취득인 경우 취득세 등이 660만 원 정도 되는 반면에 부동산 경매를 통하면 취득세 등은 220만 원이 든다.

02 취득 시점을 조정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

재산세의 납기 중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건물분 재산세는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종합부동산세의 납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통점은 세금을 과세할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1년 치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이다. 요즘 부동산 보유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는 시점을 조정함으로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 즉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6월 30일에 매도한 소유자는 재산세 고지서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부할 당시에는 소유자가 아님에도 6월 1일 현재 아파트의 소유자였으므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납부해야 할지 아니면 이후에 납부해야 할지 어느 것이 이득인지 검토하여야 한다.

03 한 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의 통산 이용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보유기간이 2년(주택의 경우 1년) 이상의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6~42%의 누진과세가 적용된다. 2개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언제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플러스인 경우
양도차손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마이너스인 경우

먼저 2개의 부동산 모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도를 달리하여 다른 연도에 매매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2개의 부동산 중 하나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하나는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면 같은 해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A부동산에서 3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고 B부동산에서 3천만 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는데 다른 연도에 매매하였다면 A부동산에 대해서는 15%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B부동산의 양도차손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지만, 2개의 부동산을 같은 해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차익이 합해서 0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양도차손은 이월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연도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을 뿐이며, 통산의 결과가 양도차손인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 않는다. WIN CLASS

UNTACT INDUSTRY

비대면 산업



언택트 시대,

주목받는 모션·음성인식 기술

최근 코로나19라는 인류사 초유의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언택트 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은 우리의 인위적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여 향후 언택트 산업에 대한 전망은 더욱 밝을 것이다.

WORDS. 박정호 명지대학교 특임교수



언택트(Untact)는 '접촉하다'라는 의미의 '콘택트(Contact)'에 부정적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단어. 매장의 키오스크 주문 등 직원이나 다른 소비자와 접촉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 경향. 코로나19 사태 후 언택트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언택트 산업 제대로 이해해야

많은 사람들이 언택트 산업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논의 대부분이 언택트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 듯하다.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현재 비대면 환경으로 언급되는 사례 중 상당수가 간접적인 대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지금 언택트 환경으로 지칭되는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양한 방식의 간접적 대면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비대면 환경이다. 최근 10여 년 동안 전개된 가장 큰 산업적인 흐름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코, '촉각의 대두'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초반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촉각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일례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제품의 성능을 평가할 때, '터치감이 좋다'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한다. 터치스크린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에도 적용되고 있고, 주요 공공 안내표지판 역시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기계식 버튼에서 터치스크린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학교 역시 이제는 전자칠판이 낱설지 않은 상황이다.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만져야 작동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터치' 내지 '촉감'은 일상에서 접하는 주변기기를 조작하기 위한 수단적인 용도(Instrumental Touch)로 자리매김하였다.

음성과 동작을 활용한 기술에 주목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언택트(Untact, 비대면) 산업이 대두되면서 촉각을 중심으로 한 환경이 급격히

수정·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늘 사용해 왔던 공용 공간의 여러 버튼들을 누를 때마다 웬지 꺼림칙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레스토랑이나 관공서 키오스크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만질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며 건물 엘리베이터 버튼도, 백화점 혹은 관공서 입구의 자동문 버튼도 매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지는 물건들이다. 즉,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최근 많은 공공장소에서 항균 필름을 이들 버튼에 씌워두거나, 손소독제를 비치해두고 반의무적으로 손소독을 요구하는 이유 역시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버튼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접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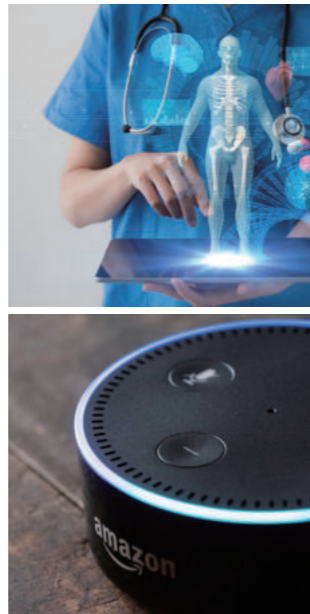
그러나 언제까지 항균 필름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미봉책에 의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다시 말해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유발될 수 있는 상호 간의 접촉마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언택트 상황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소통이 아닌 '음성'과 '동작(Motion)'을 활용한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손동작만으로 가능한 '모션인식 기술'

최근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주목할 언택트 기술이 '모션인식 기술'이다. '모션인식(Motion Recognition) 기술'이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손동작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이러한 동작을 통해 기기를



모션인식(Motion Recognition) 기술이란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손동작을 카메라가 인식하여 이러한 동작을 통해 기기를 작동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작동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현재의 모션인식 기술은 신체 골격을 인식하여 각 관절의 정보를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또한 특정 기기를 작동시키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원거리에서도 얼마든지 기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 또한 모션인식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모션인식 기술은 미래 신기술이라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이미 2010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작입력 컨트롤러 '키넥트(Kinect)'와 닌텐도 wii 게임에서 모션 인식 기술이 도입된 것을 계기로 의료,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2012년에는 MIT 학내 학술지를 통해 림모션(Leap Motion) 기술이 스마트폰 이후 가장 주목할 기술로 소개된 바 있다. 당시 학술지에는 이제 마우스 없이도, 터치스크린에 손을 대지 않아도 충분히 기기를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극찬한 바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에서는 모션인식이 가장 보편적인 인터페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모션인식 기술이 향후 여러 분야로 확장 적용될 보편 기술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AI를 품은 음성인식 기술

음성인식 기술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음성인식 기술은 고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단어까지 모두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가 구사하는 언어와 문장은 그야말로 방대한 수준이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능력뿐만 아니라 음성을 받아들여 디지털

정보로 변화시키는 센서 기술도 음성인식 기술의 필수 요소이다. 이러한 음성인식 기술 또한 그 역사가 생각보다 오래되었다. 1954년 IBM과 조지타운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한 기계번역 기술 개발 프로젝트가 초기 대표적인 음성인식 기술 중 하나로 꼽는다.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 스피커 내지 차량 내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음성으로 주변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제품이 늘고 있다. 아마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네이버, 삼성전자 등도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AI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든 아마존은 스마트홈 스피커 '에코'(Echo)를 출시한 이후 '에코 닷'(Echo Dot), '아마존 탭'(Amazon Tap) 등을 선보이며 AI 스피커 시장을 이끌고 있다

언택트 환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

앞서 열거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두될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션인식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로 대변되는 비대면 수단들을 다양한 상황과 제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시도가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장애물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닐까 생각한다. 화상회의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야 한다는 선입견, 계약 체결 전에 얼굴은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는 선입견, 재택 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회사에 나와야 일을 한다고 믿는 선입견 등이 언택트 산업의 성장을 막아 왔다. 그간 언택트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주된 원인이 대면을 중심으로 한 우리들의 기존 문화 내지 선입견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음성인식 기술과 모션인식 기술이 이미 한참 전에 개발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오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언택트 환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체계적인 언택트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적인 환경 또한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된 언택트 환경을 구축해 줄 ICT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미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대면적 상황 속에서 진화·발전해 온 우리 인류의 선입견을 뛰어넘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닌까 생각된다. WIN CLASS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두될 언택트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션인식 기술과 음성인식 기술로 대변되는 비대면 수단들을 다양한 상황과 제품에 적용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 3분기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WORDS. IBK투자증권 투자분석부



하반기 투자는 신중하고 안전하게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주식시장이 일정 수준 회복되면서 주가가 매우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시장은 금리가 역사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급락한 후 정책 기대와 저가 매수세에 절반가량을 빠르게 회복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발표하고, 통화 완화 정책을 펼쳤다. 일본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재정지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정정책 규모를 발표했고, 미국도 작년 재정지출의 3분의 1 정도 규모의 재정 확대 정책을 마련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 일본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규모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주요국 금리도 역사상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저평가 매력은 낮아졌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가치를 주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경제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 당장은 각국 정부들이 기업들의 단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 지원은 약해질 것이고, 일부 취약한 기업들은 부도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투자심리가 코로나19 발발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점도 주식시장의 수급에 부정적이다. 과거 발발한 전염병 이후를 분석한 결과, 저축 심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계와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늘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채권시장에서도 매매차익을 올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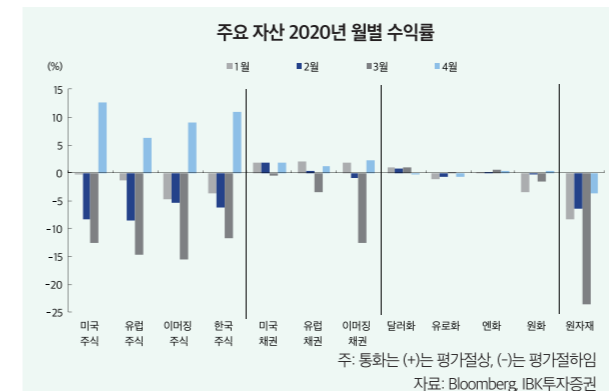


예상된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완화 정책과 경기에 대한 우려로 이미 금리가 매우 낮아진 상황이고, 추가 완화 정책 여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자산 가격의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이 다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먼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국의 코로나19 2차 확산 가능성이 있다. 일부 이머징 국가에는 코로나19가 뒤늦게 확산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경제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19 책임론과 미·중 1차 무역합의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확대하면서 재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종합하면 현재 자산 가격의 저평가 매력은 약화됐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은 적지 않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목표 수익률을 낮게 설정하고, 매매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이자, 배당금 등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주식시장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확산세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투자심리는 온전하게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수의 상승보다는 하락에 무게를 두고 대응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V자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위축된 소비와 생산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유럽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됐던 시기를 생각해 본다면 후행 지표의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과거 9.11사태에도 미국의 신규 실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뒤 완화되기는 했으나 후행지표 부진이 지속되면서 증시도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부진한 펀더멘털에 의해 제한될 것이며,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레벨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일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떤 산업군이 주목을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체가 불명확했던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던 4차 산업혁명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할 업종은 등장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화자되는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박단소가 될 것이다.

현재 증시 흐름도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수가 조정되더라도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SW를 기반으로 한 언택트 산업과 함께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 사회적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는 곳이다. 향후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모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역시 변하게 될 것이다.

IBK투자증권은 하반기 주식시장에 대해 섹터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상승보다는 하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및 기업 실적의 부진,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 무역분쟁의 재발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익숙한 업종 및 종목으로 투자할 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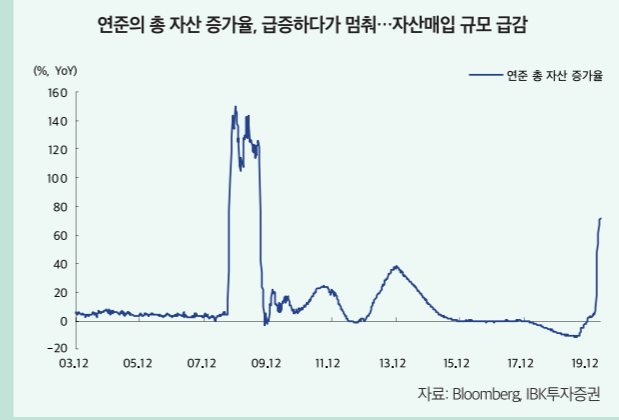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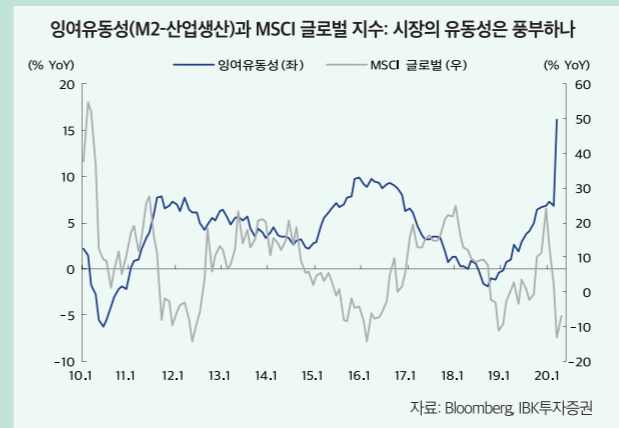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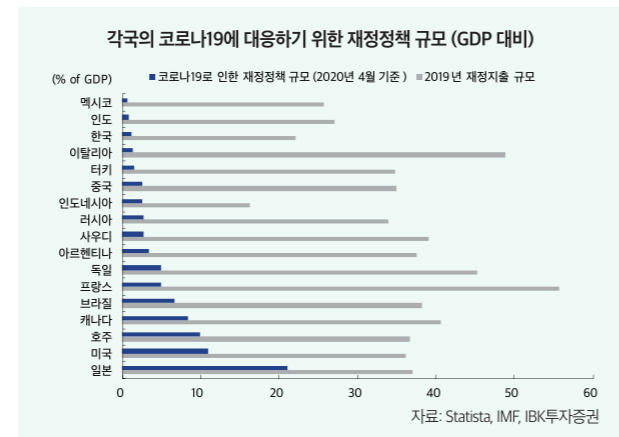
있겠지만 지금은 미래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미국 금리의 방향성,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상반기 금융시장은 코로나19가 지배했다.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도 코로나19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전염 자체에 따른 공포보다는 이미 벌어진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이다.

과거 SARS나 MERS와 같은 전염병은 경제지표 부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필연적으로 수반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이동 제한과 생산활동 중단이 발생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경제지표 부진은 더 심각하고, 정책은 더 강했다. 이미 3월 초부터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기존에 시행했던 정책 이상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금융시장은 점점 더 강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과다한 정책을 당연시했고, 정부(혹은 중앙은행)는 서서히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을 받치기 위해 만성적인 시장 개입을 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시장은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을 기본적인 수급 주체로 여겨 왔기 때문에 시장 개입 규모를 줄이거나, 예상치 이하의 개입은 오히려 금리에 상승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이다.

최근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책은 연준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이나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YCC)이다. 미국 외에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범주의 정책이지만, 단기간 내에 연준이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 연준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와 일드커브 컨트롤



정책, 저등급 회사채 매입 확대 등과 같은 대책을 제외하고는 통화정책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코로나19의 경제 타격이 가시지 않은 지금,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재정정책이다.

미국의 경우 재정적자가 극심하긴 하나 기축통화국이라는 특징으로 추가 재정을 보다 여유롭게 편성할 수 있고,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미국 10년 금리가 현재 0.6% 수준으로 낮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미국채(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유리하다.

연준이라는 든든한 투자주체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으로 인한 추가 채권 발행량이 많다 하더라도 미국 금리의 급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로 연준은 3월 말 무제한 국채 매입 발표 이후 일 평균 7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중순 이후 그 규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80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여력은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인해 추가 매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은 금리의 추가 하향이나 안정보다는 기업과 가계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더불어 금리 수준도 이미 충분히 낮아 추가 금리 하향이 가져오는 베네핏이 적은 가운데, 향후 위기의 출구전략 국면에서 제로금리 리스크가 부각될 것을 정책당국으로서는 감안할 필요도 있겠다.

결국 3분기 미국 금리는 향후 전저점을 하향 돌파할 가능성 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지표 부진과 코로나19의 2차 감염 가능성은 기정사실처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의 본격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채권 공급 부담과 연준에 대한 기대감(마이너스 금리 등)이 실망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3분기 미국 금리가 전저점을 뚫고 추가로 하락하려면 1) 지난해 1단계 무역합의를 둘러싼 수준의 미·중 무역갈등이 유발되거나 2) 2차 감염이 1차 감염보다 더 큰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연준의 마지막 카드(마이너스 기준금리, YCC 정책 등)가 사용되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WIN CLASS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을 코로나19. 경제적 타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가 화두가 될 것이다.



공연과 전시, 이제 안방에서 즐긴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중요시되면서 문화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2m 거리두기가 여의치 않은 공연장과 전시장에서 언택트(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WORDS. 정재림

— 01.
비온드 블랙

— 02.
말러 시리즈

국립현대무용단 '댄스 온 에어 DANCE ON AIR'

국립현대무용단은 온라인 콘텐츠 프로젝트 '댄스 온 에어 DANCE ON AIR'를 진행한다. 무대에서 직접 관객을 만나는 대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라인을 통해 더욱 폭넓은 관객에게 다가가자는 취지다. 지난 4월부터 유튜브와 네이버TV를 통해 선보인 '댄스 온 에어'의 누적 조회수는 <봄의 제전> 16,200회(2회 누적), <혼자 추는 춤> 186,936회(2회 누적) 등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작 <비온드 블랙>은 4월 공연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되었다가 6월 26일(네이버TV), 27일(유튜브)에 걸쳐 2회 무관중 공연으로 초연한다. <비온드 블랙>은 인공지능 안무의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으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에 대해 꾸준히 질문을 던져온 신창호 안무가의 주제의식이 담겨있다.

또한 국립현대무용단은 작품 상영뿐 아니라 매주 수·금요일 <유연한 하루>를 통해 현대무용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제공하고, 넷째 주 수요일에는 <춤추는 강의실>을 통해 '현대무용, 시대와 소통하는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강의도 진행한다.

· 국립현대무용단 네이버TV NAVER

<https://tv.naver.com/kncdc>

· 국립현대무용단 유튜브 YouTube

<https://www.youtube.com/user/34721420>



01



02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말러 시리즈>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7월 17일 네이버TV를 통해 공연을 생중계한다.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창단 이래 지난 35년간 국내외에서 매년 120회 이상의 연주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2000년부터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로 지정되어 극장 오케스트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생중계하는 <말러 시리즈>는 2019년에 이어 2번째 공연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35번 k. 385 하프너와 말러의 교향곡 제4번을 선보인다. <말러 시리즈>의 지휘를 맡은 정치용 지휘자는 2018년부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남다른 음악세계를 펼쳐왔다. 특히 정확한 바톤 테크닉(지휘법)과 곡의 핵심을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 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뉴욕 메트로폴리탄오페라에서 데뷔한 이래 세계 유수의 오페라단과 오페라극장 무대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소프라노 캐슬린 김의 매력적인 음색이 우리를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네이버TV 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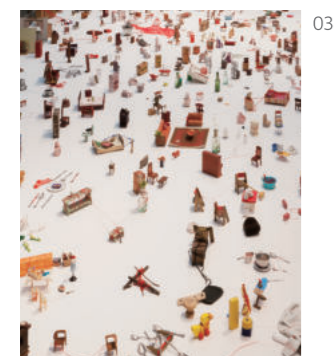
<https://tv.naver.com/koreansymphony>

부산시립미술관 <시오타 치하루 : 영혼의 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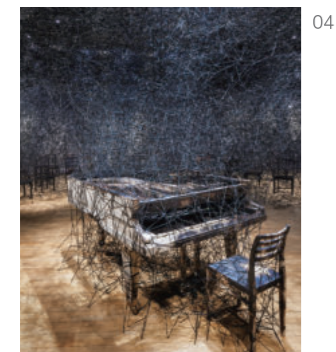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도 집에서 즐길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휴관 기간에 <시오타 치하루 : 영혼의 떨림> 전을 VR 전시로 공개하고 있다. 실을 오브제로 사용한 4개의 대형설치작품을 중심으로 조각, 사진, 드로잉, 퍼포먼스까지 작가의 25년간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11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작가 시오타 치하루는 두 번의 암 투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체험한 감정들을 실, 드레스, 의자, 침대, 신발, 가방 등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소한 사물을 통해 나타낸다. <시오타 치하루 : 영혼의 떨림> 전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 운명, 죽음 등의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어 관객들에게 존재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어 준다. 일본 도쿄 모리미술관에서 넉 달 만에 6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불러 모았던 인기 작가 시오타 치하루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자. WIN CLASS

· 부산시립미술관 VR 전시

<https://my.matterport.com/show/?m=y5wqa42ZPJQ>



03



04

— 03. 작은 기억들을 연결하다(Connecting Small Memories)

— 04. 침묵 속에서(In Silence)

— 05. 불확실한 여정(Uncertain Journey)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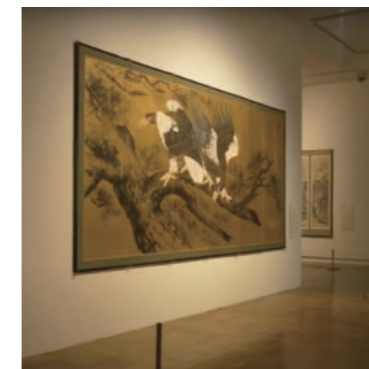
비대면 문화생활

Untact Culture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 문화포털
www.culture.go.kr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각종 문화포털에서는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콘텐츠를 한 대 모아 확인할 수 있도록 문화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40가지가 넘는 다양한 콘텐츠로 문화생활을 즐겨보자.



책장에서 책을 찾는다. 오래된 시집을 꺼내 천천히 쓰다듬는다.



이 사군자 그림들이 절개를 상징한다.



부탄으로 떠나는 여행

삶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인가요?

Bhutan

1970년 한국과 부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225달러와 212달러였다. 2020년 한국인의 연간 평균 소득은 3만 달러에 달하고, 부탄은 3천 달러 정도. 성장과 무한 경쟁의 길로 내달린 한국, 그리고 급성장보다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는 길을 택한 부탄.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행복의 기준은 부가될 수 없다는 것을.

WORDS. 이지홍

주민 행복, 지속 가능성,

삶의 만족도가 우선인 '부탄'

1972년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그메싱예 왕추크'가 17세의 나이로 국왕이 되었다. 그는 국왕 즉위식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 총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높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속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며, 생태계를 보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나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관리들은 모범을 보이고 국왕은 좋은 통치를 실천한다는 것이 부탄의 국민행복 정책이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의 나라이자 전 국토에 숲의 빈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부탄은 지구촌의 마지막 청정 국가로도 불린다. 국왕이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고 입헌군주제로 만든 나라이자 국가 부패 방지 위원회가 있는 나라인 '부탄'. 살인, 강간, 마약 등의 강력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선진국들보다 발전이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행보를 내딛는 부탄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눈여겨보게 된다.

부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 '파로'

산중 계곡에 위치한 '파로국제공항'

히말라야 동남쪽 산속에 존재하는 평야가 거의 없는 나라 부탄은 북으로는 티베트와 국경을 맞대고 동/서/남으로는 인도에 둘러싸여 있다. 한국에서 부탄을 가는 직항 노선은 없어 주변 국가를 경유해서 갈 수 있으며 주로 태국 방콕 또는 인도를 경유한다. '파로'에는 부탄의 국제공항이 있어 모든 여행자는 '파로'를 통해 부탄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 부탄에 도착하면,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공항에서부터 첫인상이 강렬하다. 파로는 부탄 통일 후 19세기에 수도가 되면서 부탄의 정치, 상업, 문화 중심지 역할을 맡게 되었다. 특히 이곳에는 부탄을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부탄 불교의 상징인 탁상 사원(Taktshang Tiger's Nest)이 있다. '탁상'이란 호랑이의 동지를 뜻하는 부탄의 언어인데 부탄에 불교를 전파한 파드마삼바바가 호랑이를 타고 온 장소라는 전설이 내려와 호랑이 사원이라고도 불리며 부탄 여행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트래킹 코스 중 하나이다. 평지에서 900m 이상 깎아지른



부탄의 제4대 국왕 '지그메싱예 왕추크'는 국왕 즉위식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국민 총 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를 높여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01



© Kituu#39's

— 01.
해발고도 2,230m 높이,
산으로 둘러싸인 파로국제공항

— 02.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푸나카 드중'

— 03.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나라 '부탄'
부탄 문가의 전통춤은 화려함의 극치다.
불교 종교식에서 마스크를 쓴 무용수가
역동적인 몸짓을 보인다

— 04.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부탄' 사람들

02



© thekamari306

03



© Mark Dozier

04

절벽에 있는 이 사원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내외국인 모두 긴 바지 혹은 긴 치마와 긴팔 셔츠를 착용해야 하며 카메라와 핸드폰 등 모든 소지품을 입구에 보관한 후 입장할 수 있다. 이곳은 고산지역이라 가스가 차면 파란 하늘을 보기 어려우므로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외에도 '파로'에는 영화 '리틀 부다'의 촬영지로 유명한 '파로 드중'이 있다. 부탄 전통 건축양식이 잘 드러나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으로 손꼽히는 곳이니 함께 둘러보도록 하자.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부탄의 수도 신호등이 없는 도시 '팀푸'

팀푸(Thimphu)의 가장 변화한 교차로 중앙에는 목조 구조물이 있고 그 안에 정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차들에게 손으로 신호를 보낸다. 시내 도로 어디에서도 전기로 작동하는 신호등을 볼 수가 없다. 가난한 나라라 그런가 생각하기 쉽지만, 부탄은 전력이 풍부한 나라다.



05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하고 느린 나라 부탄을 여행하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터. 히말라야에 남은 마지막 불교 왕국인 부탄의 수도답게 이곳에는 51m의 세계 최대 높이의 좌불상이 있다.

— 05.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는 도시 '팀푸'

— 06.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전설의 '치미라캉 사원'

— 07. 부탄의 트롱사현에 있는 트롱사 종으로 들어가는 부탄인

— 08. 신호등이 없는 부탄의 수도 '팀푸'



06

© Peter Adams Photography



07

© theskaman306

행복한 나라로 떠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

Kingdom of Bhutan

비자

부탄을 여행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또한 부탄은 외국인 자유여행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로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만 입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부탄 현지 여행사에 지불하는 비용은 1인당 하루 250달러(비수기 200달러)로 여기에는 숙박과 식사, 입장료, 가이드 인건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관광객 1인당 40달러를 추가로 부탄 정부에 송금해야 하는데 2인은 할인되어 30달러씩 내면 되고 3명 이상은 추가 비용 없이 250달러만 내면 된다. 혼자 관광을 하더라도 차 1대와 가이드 1명 운전수 1명이 함께하며 3성급 이상의 호텔을 제공받게 된다. 3성급 이상의 호텔을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묵을 수 있다. 특이점은 호텔에 수영장이 없어 수영복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언어

부탄 언어는 중카어이며 티베트어와 영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거의 없다.

전압

부탄의 전압은 220V로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날씨

6월~10월까지의 평균 최고 기온이 24도 이상이며 8월이 가장 덥다. 일 년 중 가장 추운 달은 1월로 최저 기온은 7도이다. 보통 5~9월을 우기로 보며 7월에 비가 가장 많이 오는 편이다. 11월~3월은 건기로 1월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음식

부탄은 불교국가라 살생을 금하고 있어 활을 쏘아 동물을 죽이거나 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부탄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루머도 있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어 원한다면 끼니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금연

세계 유일의 금연 나라 '부탄'에서는 담배를 사거나 피울 수 없다. 꼭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 Joristock

08

과거에는 부탄에도 전기 신호등을 세웠는데 사람들이 싫어해서 철거한 뒤 다시 세우지 않고 있다. 수도인 팀푸 뿐 아니라 부탄에 신호등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기계의 지시를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 조용하고 느린 나라 부탄을 여행하며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터. 히말라야에 남은 마지막 불교 왕국인 부탄의 수도답게 이곳에는 51m의 세계 최대 높이의 좌불상이 있다. 팀푸 외곽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팀푸 시내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니 꼭 둘러보도록 하자.

첫눈이 오면 공휴일이 되는 나라

부탄의 겨울 수도 '푸나카'

부탄의 현 수도인 '팀푸'와 겨울 수도로 불리는 '푸나카'를 잇는 산간도로를 달리다 보면 해발 3,100m의 도출라 고개를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는 부탄 최고봉인 캉카푼숨봉을 비롯해 동부 히말라야산맥의 장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마음의 여유를 갖고자 하는 부탄 여행자들의 필수 코스다. 푸나카는 히말라야 동쪽 기슭에 있는 부탄의 옛 수도로 부탄의 전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는 작은 시골 마을로 이모작이 가능하며 쌀, 바나나, 오렌지 등의 산지로 풍요로운 땅이기도 하다. 푸나카 지역을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관광지로 부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소문난 '푸나카 드종(Punakha Dzong)'과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참배하고 기도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로 유명한 '치미라캉 사원(Chimi Lhakhang)'이 있다. WIN CLASS

'행복'이 잡는다고 잡아 지나요



행복은 우리 곁에 머물지 않는다. 그냥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처럼 스쳐지나갈 뿐이다.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는 것. 잡았다고 해도 잡히고 나면 이미 행복이 아닌 것.
그것이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싶어 하는 행복의 실체다.

EDIT. 김효정

“행복이란 골칫덩어리일 뿐이야.”
왕자가 도넛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말이야. 이미 행복한 적이 있었다는 거야.”
왕자는 다시 한 번 말하며
혀로 수염에 붙은 설탕 조각을 핥았습니다.

카투시아는 한 동안
케이크의 크림만 열심히 먹다가
마침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네.
행복이 행복이지. 무슨 문제라고.”



“행복은,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 버려.
내일, 아니면 일주일 뒤,
아니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눈앞의 행복을 못 알아보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나랑 크림 케이크를 먹는...
그리고 설탕 과자를 먹는 이 행복 말이야.
그나저나 난 아무래도 도넛을 추천해.
이건 최고라고.”

“우리가 지금 이 과자가게에 함께 앉아서
맛있는 과자로 배를 채우며 행복해하지만,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다는 건,
어쩌면 아예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여기 더 앉아 있자.
아무데도 서둘러 가지 말고.”



카투시아가 환하게 웃어보였습니다.
도넛 두 개를 더 주문하고,
들은 조용히 그것을 먹었습니다. WIN CLASS



<과자가게의 왕자님>
글. 마렉 비에인치 / 그림. 요안나 콘세이요 / 사계절

행복은 골칫덩어리라고 말하는 왕자와 그의 연인 카투시아가 과자가게에서 나누는 대화를 담은 그림책. 왕자는 행복에 대해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만이 앞서지만, 카투시아는 그저 케이크와 도넛이 맛있을 따름이다. 과자를 다 먹고 나가면 이 행복이 끝날 것이라 말하는 왕자에게 그럼 맛있는 것을 더 시키고 더 있다 가져고 하는 카투시아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행복을 대하는 두 남녀의 방식과 대화가 흥미를 이끌어 낸다.

5월 자산시장 전망

주식시장

국내증시 전망

글로벌 경기부진, 유가급락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민감도가 높은 대형주들의 상승동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실적이 양호한 개별기업 주가의 '각개 약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높음. 따라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중소형주 관련 펀드성도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

해외증시 전망

(선진국) 유가부진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부진 여파로 2분기 기업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IT 및 소비업종을 중심으로 주가는 점진적인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신흥국) 브라질, 러시아는 유가 급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주식시장의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미국과의 무역마찰 우려 확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가 중국증시의 상승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 전망

채권시장

국내 채권시장 전망

기준금리 인하 및 채권안정화 펀드 도입 등으로 단기채권 금리는 비교적 안정화되고 있으나 중장기 국채의 경우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수급부담으로 인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등 불안한 시장흐름이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채권형펀드 성과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채권시장 전망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무제한 채권매입, 금리인하 정책에 힘입어 선진국 채권금리의 경우 당분간 안정된 흐름이 예상됨. 신흥국 채권의 경우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정불안,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선진국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여줄 듯

이달의 추천펀드 ONE-PAGE 리포트(2020년 5월)

공격투자형 2등급

KTB글로벌4차산업1등주 주식형
 신한BNPP중국본토인덱스 주식형

적극투자형 3등급

삼성미국인덱스H 주식형
 유리글로벌거래소 주식형
 IBK플레인바닐라EMP 혼합·재간접형
 미아디스책임투자 주식형
 IBK코스피200인덱스 주식형

위험중립형 4등급

신한BNPP삼성전자알파 채권·혼합형

안정추구형 5등급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 채권형
 한화코리아밸류채권 채권형
 유진챔피언공모주 주식·혼합형

안정형 6등급

한국투자e단기채 채권형

■ 투자성향 ■ 펀드위험등급

판매사 **IBK기업은행**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고민이라면?

토지보상, IBK와 함께 의논하세요



국세청 및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세무·부동산 전문가들이
 토지보상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표전화 (세무) 02-2031-5700, 5449 / (부동산) 02-729-7189, 6954

• 토지보상 관련 세무·부동산·금융 컨설팅 제공

- 토지보상 주요절차, 사후 관리 포인트, 상속과 증여에 따른 절세전략 등 토지보상금과 관련된 전문가 상담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운영방안 수립지원 등
- 전국 18개 WM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 기타혜택

• VIP행사 우선초청 기회 제공

사랑나눔음악회, Private Top 클래스, WIN CLASS콘서트 등

• 우수고객 특화서비스 제공

경조사 지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대행, 증여신고 무료대행 등

※본 서비스는 별도 기준에 따라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거래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당신을 위한
IBK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WIN CLASS

최고의 품격, 최상의 자산관리로 평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WIN CLASS



IBK기업은행
WIN CLASS의
차별화된 서비스

- **Consulting** 최고의 자산관리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드립니다.
- **Portfolio** 고객님의 자산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투자전략을 제시합니다.
- **Premium** 고객님의 품격 있는 라이프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와 경험을 선사합니다.

· WIN CLASS는 IBK기업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rivate Banking 브랜드입니다.

준법감사인 심의필 제 2019-4077호 (2019.08.19) 게시기한 : 2020.08.31 출금번호 : EP261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역는 거래점점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융·형용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